

한국갤럽 Gallup Report 2013/04/10

북한의 도발 위협에 대한 의견은? - 개성공단 진입 차단 이후

최근 북한은 개성공단을 잠정 폐쇄하고 한국 내 외국인들에게 대피를 권고하는 등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. 국내외 언론들도 연일 한반도의 평화와 위기에 주목하고 있으나, 이와는 대조적으로 우리 국민의 일상(日常)은 큰 동요 없이 평화롭게 흘러가는 모습입니다.

북한은 정말 도발할까요? 우리 국민들은 북한의 도발 위협 가능성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? 북한의 개성공단 진입 차단 조치 이후인 4월 8일과 9일 양일간 한국갤럽이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616명을 대상으로 북한의 도발 가능성, 개성공단 사업 지속 여부 등에 대한 우리 국민의 생각을 알아보았습니다.

조사 개요

1. 조사기간: 2013년 4월 8일~9일(2일간)
2. 표본추출: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
3. 응답방식: 전화조사원 인터뷰
(한국갤럽 전화조사원이 무작위로 생성된 휴대전화 번호로 직접 전화를 걸어 인터뷰)
4. 조사대상: 전국의 만 19세 이상 남녀 616명
5. 표본오차: $\pm 3.9\%$ 포인트(95% 신뢰수준)
6. 응답률: 17%
7. 의뢰기관: 한국갤럽 자체조사

주요 결과

- 북한은 실제로 도발할 것인가?: ‘그렇다’ 24% vs. ‘아니다’ 67%
- ‘북한 도발할 것’ 3주 전(47%)에 비해 절반으로 줄어 -
- 전쟁을 대비해 준비한 것은?: ‘아무 준비도 하지 않았다’ 96%
- 개성공단 사업은?: ‘계속해야 한다’ 48%, ‘중단해야 한다’ 41%
- ‘통일은 10년 후쯤 점진적으로’ 63%, ‘하루빨리 이뤄져야’ 11%,
‘통일보다는 현재대로가 낫다’ 22%
- 3차 핵실험 직후 조사 대비 전반적으로 큰 변화 없어 -

북한은 실제로 도발할 것인가?: '그렇다' 24% vs. '아니다' 67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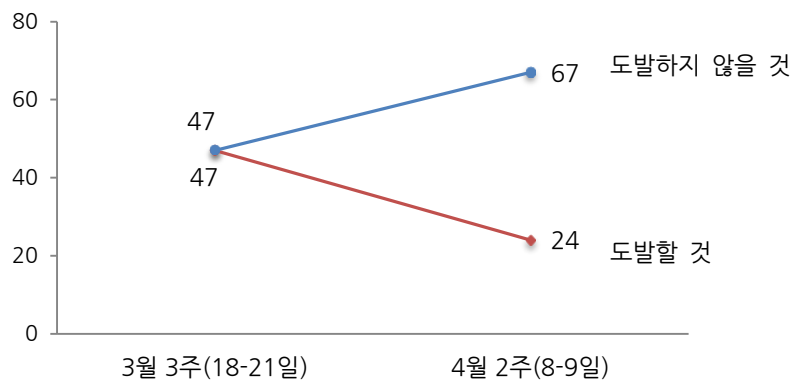
- '북한 도발할 것' 3 주 전(47%)에 비해 절반으로 줄어 -

한국갤럽이 지난 4월 8일부터 9일까지 2일 간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616명에게 북한이 실제로 도발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묻은 결과 '도발할 것' 24%, '도발하지 않을 것' 67%로, 우리 국민은 도발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에 무게를 실었다.

3주 전 조사(47%)에 비해 이번 조사에서는 '북한이 도발할 것'이라는 의견이 절반으로 줄어 북한의 위협 수위와는 대조적으로 우리 국민이 생각하는 북한 도발 가능성은 낮아졌다.

북한이 도발할 것이라는 응답은 남성(28%)이 여성(21%)보다 많았고 연령별로는 20대(33%)에서 가장 많았고 60세 이상(18%)에서 가장 적었다.

▶ 북한은 도발할 것인가 (단위: %)



구분		표본수(명)	도발할 것	도발하지 않을 것	모름/응답거절
전체		616	24	67	8
성별	남성	305	28	65	7
	여성	311	21	70	9
연령별	19~29세	112	33	64	3
	30대	125	23	69	8
	40대	135	26	65	9
	50대	117	23	65	12
	60세 이상	127	18	73	9

질문) 최근 북한의 도발 위협이 계속 되고 있는데요.

귀하께서는 북한이 실제로 도발을 할 것이라고 보십니까, 도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십니까?

전쟁을 대비해 준비한 것은?: '아무 준비도 하지 않았다' 96%

전쟁을 대비해 준비한 것이 있는지 묻은 결과, 96%가 '아무 준비도 하지 않았다'고 답했다. 한편, 2%는 '라면, 생수 등 생필품 구입', 1%는 '대피처 확인'을 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 외 소수 응답으로 '현금 확보', '방독면 준비', '마음의 준비' 등이 있었다.

북한 도발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사람들(150명)도 대부분(94%) 특별한 대비는 하지 않았다.

▶ 전쟁을 대비해 준비한 것은? (단위: %)

구분		표본수(명)	아무 준비도 하지 않았다	라면, 생수 등 생필품 구입	대피처 확인	기타
전체		616	96	2	1	1
성별	남성	305	95	2	1	2
	여성	311	96	2	1	1
연령별	19~29세	112	89	4	2	5
	30대	125	96	4	-	-
	40대	135	97	1	2	1
	50대	117	98	2	1	-
	60세 이상	127	98	-	1	1
도발 가능성	도발할 것	150	94	4	1	1
	도발하지 않을 것	415	96	1	1	1

질문) 귀 닥에서는 전쟁이 일어날 것을 대비해 준비한 것이 있습니까? (있다면) 어떤 준비를 하셨습니까?

개성공단 사업은?: '계속해야 한다' 48%, '중단해야 한다' 41%

최근 북한은 개성공단 진입 차단에 이어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측 근로자들을 모두 철수시켜 공장가동을 잠정적으로 중단했다.

개성공단 사업을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의견을 묻은 결과 '계속해야 한다' 48%, '중단해야 한다' 41%로 북한의 위협과 남북경협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 사업의 지속을 원하는 국민이 좀더 많았다.

개성공단 사업 지속 의견은 연령별로 차이가 없었으나
사업을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은 30대(47%)에서 가장 많았고
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있다는 사람(49%) 중에서도 많았다.

▶ 개성공단 사업은? (단위: %)

구분		표본수(명)	계속해야 한다	중단해야 한다	모름/응답거절
전체		616	48	41	11
성별	남성	305	49	43	8
	여성	311	48	38	14
연령별	19~29세	112	45	42	14
	30대	125	47	47	7
	40대	135	50	40	10
	50대	117	48	38	14
	60세 이상	127	50	37	12
도발 가능성	도발할 것	150	45	49	7
	도발하지 않을 것	415	50	38	12

질문) 귀하께서는 개성공단 사업을 계속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,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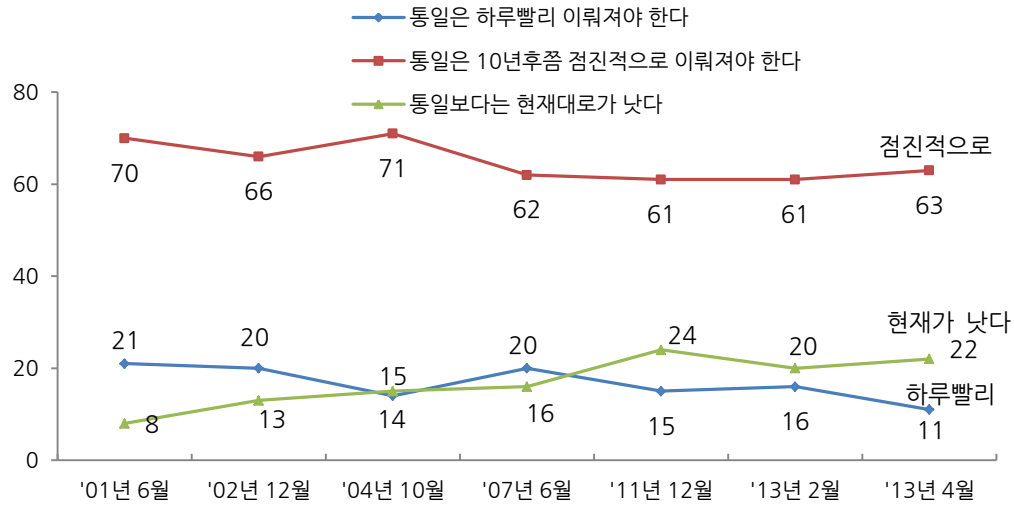
**‘통일은 10년 후쯤 점진적으로’ 63%, ‘하루빨리 이뤄져야’ 11%,
‘통일보다는 현재대로가 낫다’ 22%
- 3차 핵실험 직후 조사 대비 전반적으로 큰 변화 없어 -**

남북통일에 대한 견해를 물은 결과 ‘통일은 10년 후쯤 점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’는 의견이 63%로 가장 많고 ‘통일보다는 현재대로가 낫다’ 22%, ‘통일은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’ 11%로, 점진적으로 통일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세를 이뤘다.

북한 3차 핵실험 직후 실시된 2월 조사에 비해
‘통일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’는 의견은 5%포인트 하락했으나
전반적으로 통일을 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변함이 없었다.

응답자 특성별로 보면, 통일이 하루 빨리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은 고연령일수록 증가했고 저연령일수록 점진적 통일 방안에 더 공감했다. 또한 현재대로가 낫다는 의견은 남성(19%)보다 여성(26%)에서 많았다.

▶ 남북통일에 대한 견해 (단위: %)



구분		표본수(명)	통일은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	통일은 10년후쯤 점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	통일보다는 현재대로가 낫다	모름/응답거절
전체		616	11	63	22	4
성별	남성	305	10	67	19	4
	여성	311	12	59	26	3
연령별	19~29세	112	6	68	23	2
	30대	125	8	68	24	-
	40대	135	10	70	18	2
	50대	117	16	56	23	6
	60세 이상	127	16	52	25	7
도발 가능성	도발할 것	150	13	67	16	4
	도발하지 않을 것	415	11	63	24	3

질문) 남북통일에 대해 다음 중 어떤 의견에 가장 공감하십니까? (3 가지 의견 제시)

문의 한국갤럽 기획조사실 장덕현 부장 02-3702-2571 dhjang@gallup.co.kr